

캐럴 대신 “하야”...금남로 성탄 촛불 ‘활활’

광주·전남 9차 촛불집회

“하야 크리스마스, 메리 하야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에도 촛불은 여덟없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타올랐다. 국가와 대통령이 정상적이었다면 연인·가족과 함께 기쁘게 성탄절을 맞아야 할 이날,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손에 촛불을 들었다.

지난 24일 오후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제 9차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 촛불대회에는 1만명의 시민(경찰추산 2000명)이 참여했다. 캐럴이 울려 퍼져야 할 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장애인 홍기림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순일(54)씨는 무대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올릴 머리를 하던 날 저는 장애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들자” 현재 조속 결정 촉구

현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 보내기...재벌 총수 비판도

인 제도 개선을 위해 삭발을 했다. 장애인 이 잘사는 세상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해 시민들에게서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광주시와 5개 구청 청사에 내걸며 정부와 맞서고 있는 공무원노조 간부도 자유발언을 했다. 강승환(50)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장은 “공무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선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 정서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라면 가까이 고발을 당하고 징계를 받겠다”면서 “이보다 더한 협박이 있다고 해도 굴하지 않겠다. 국민이 아파하지 않고 국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집회는 이처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는 정부를 비판하려고 열렸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탓에 사실상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촛불집회 전 산타복장을 한 30여명의 남성들이 나타나 어린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안기는가 하면, 집회 중간 루돌프 사슴군라는 캐럴을 현 시국에 맞게 가사를 바꿔 부르는 등 시종 성탄절 분위기가 나았다.

9차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8차 집회에서는 없었던 9명의 재벌 총수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금남로에 등장했다. 삼

성 이재용 부회장 등 9명의 총수 사진 위에는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도 탄핵(저벌)하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집회 주최 측은 “사실상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단물만 속 빼먹는 재벌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한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비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주말 열렸던 8차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조만간 대통령 파면을 결정 지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행사가 마련됐다. 시민들은 “헌법 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판관들에게 보낼 연하장을 적었다.

목포와 순천 등 전남지역 16개 시·군에서도 성탄절 전야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9차 박근혜 퇴진 광주 시국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죠”

청년연대 선물꾸러미 200개 들고 희망 선사

촛불집회에 나타난 산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촛불집회의 무대인 광주 금남로에는 산타가 등장했다.

광주·전남청년연대라는 단체가 오후 6시에 시작되는 촛불집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박근혜 퇴진 산타 대작전’이라는 이름의 사진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산타 복장을 한 회원 30여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 선물꾸러미를 안길 때마다 곳곳에선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빨간

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고 하얀 수염을 단 산타가 신기했는지 “함께 사진을 찍자”라는 요청부터, “산타 할아버지 집은 어디에요?”라는 등 질문이 어린이들에게서 쏟아졌다.

주말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분노로 짝 찢던 금남로도 이순간 만큼은 기쁨과 환호로 충만했다.

이날 광주전남청년연대가 ‘산타 대작전’을 펼친 데는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만큼은 희망과 꿈을 줘야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꺾어버린 어린이들의



꿈을 광주의 청년들이 심어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다짐의 결과물이 바로 산타 대행진을 기획한 의도라는 것이다.

이날 청년연대가 화비 모금과 기부를 통해 마련한 선물 꾸러미 200개는 행사 시작

30여분만에 동났다. 선바닥 만한 흰색 작은 선물 꾸러미 안에는 책, 과자 같은 간식부터 문구용품과 같은 학용품이 들어 있었다.

광주전남 청년연대 나민욱 대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에게 약소하나마 작은 선물을 건네고 희망을 안겨주기 위

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영기자 young@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금품 선거’ 고흥군의회 의장 실형 선고

징역 10월·추징금 1000만원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흥군의

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이승규 판사는 뇌물 공여 및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흥군의회 김의규

(58)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3선 의원인 김 의장이 민주주의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영역인 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행위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자신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던 지난 2014년 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특혜 시비 속 결국 혈세 투입

10억 지원...서구는 반영 안돼

남·광산구도 추진...잇단 비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광주시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광주일보 10월 17일자 6면> 예산이 반영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수억원대에 달하는 특정단체의 건물을 지어주는 사업인데다 건물 소유권마저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는데도 시민들이 선뜻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북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예산 5억원이 반영됐다. 전체 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건립부지로 대체), 새마을회 자부담 2억5000만원 등이다.

북구청이 제공한 우산동 인근 구유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물을 지어 사무실, 회의실, 마을기업, 문화센터 등을 갖춘 계획이다.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광주에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지부 건물을 있었지만 자치구 지회를 위한 별도 건물은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229개 새마을회 자치구 지회 중 115개 지회만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북구 새마을회는 새마을회관을 통해 새마을회 가족의 사기 진작, 새마을운동 활성화, 인재양성, 자원봉사자 사랑방 역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 등으로 새마을회 자립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부담까지 언급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

가 민간단체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절성 지적이 나온다. 또 “새마을회에만 건물을 지어주느냐”는 타 사회단체의 형평성 시비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마을회관 건립 후 건물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청은 소유권 이전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견해지만 새마을회 내부에서는 자부담이 포함된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에는 전국 18개 시도를 기반으로 한 지부 성격의 광주시 새마을회회 회관을 두고 있으나 자치구를 기반으로 둔 지회의 새마을회관은 현재 없다. 서구 새마을회는 북구와 함께 시비를 요구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북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서구 새마을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회 안팎에서는 북구 소속 시의원들이 새마을회관 건립 비용 확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새마을회와 광산구 새마을회는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한 상태여서 조만간 사업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들어 어렵게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한몫이 아닌데 새마을회 같은 구시대 유물과 같은 단체를 위해 건물을 세워 준다니 한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새마을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며 “건립 후 소유권 이전은 어려우며 새마을회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총장 공백·재정지원 권력실세 개입 의혹

국공립대교수회, 특검에 수사 요청키로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가 특검에 교육부의 임명 제정 거부로 장기화하는 총장 공백 사태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교련(회장 김영철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은 지난 23일 총남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공립대 총장 공석 사태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국정 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거점국립대학 등으로 구성된 21개 공동회장고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전남대와 광주교대,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등 5개 대학은 총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임명 제정을 미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순천대와 총남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등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 제청해 해당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국교련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도 같은 내용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집무실서 야동 보던 교장, 학생 카메라에 포착 ‘직위해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야동)을 보던 중 학생의 카메라에 포착돼 결국 직위해제.

○~25일 순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관할의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 지나가던 학생의 카메라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A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교장이 한 달여 간 주로 된간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직위해제 조치.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6타경 2994	4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1404-1 228㎡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860번길 6-2 85.3㎡ 현황2동의건물, 실측면적각38.2㎡ 외39.9㎡]	대	9,787,900 9,787,900	일괄매각, 건물현 황추택및참고
2015타경 5712	1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66-5 5330㎡	임 야	18,655,000 18,655,000	연고자미상의분묘 소재
	2	완도 238-1 438㎡	대	4,380,000 4,380,000	농림청하우스소재
2016타경 2208	1	완도군 완도를 대아리 572 271㎡	답	5,691,000 5,691,000	농지취득자격증 명요
2016타경 2888	1	완도군 군외면 영룡리 483-7 2040㎡ [광기 진지분 1/4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7,140,000 7,140,000	농지취득자격증 명요, 지분매각
2016타경 2994	1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877 414㎡ 완도 877-1 207㎡ 완도 879 711㎡	답	6,435,000 6,435,0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6타경 2994	2	완도 1167 575㎡ 완도 1168 536㎡ 완도 1182 433㎡	답	6,484,800 6,484,8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3	완도 1307 1904㎡ [연고자미상의분묘소재] 완도 1380 1593㎡	전	14,625,200 14,625,2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50054	1	해남군 화면면 화룡리 산56-4 13190㎡ [손 재물지분3967/13190전부,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임 야	30,545,900 30,545,900	연고자미상의분묘 소재, 현황유치 및 일부전, 묘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발합일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금 공유자가 임시합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17. 1. 9. [월] 10:00
- 매각결정기일 : 2017. 1. 16. [월] 14: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0방법정
- 매각방법

- 입찰신청에 비하여 기일당첨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표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본부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후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자금보증약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기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본부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

- 참는 사람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물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결정되는 즉시 반환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항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재료를 실시합니다. 다만, 제재료가 없는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총선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로서 유효하며, 미납시 제재료가 실시되는 날이 됩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등이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의 지급과지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납수영확인서 및 등록세납수영증 지서를 첨부하고, 공인중개사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합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재자 또는 대항적액은 부동산 경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보증금인식고를 하고 그 후가설이 있는 입찰자이나, 사법 자충신임을 한 입찰인이 있을 때에는 그 감지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찰인들의 청약이 채당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일에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지원(신청과제)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한 장부를 얻으신 후 입찰하루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당첨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청보증금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당첨을 할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매각특약지정명의로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지이통계확인서 등에 의하여 최고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일괄해서 재경매된다.
 - 신청한 공고일에는 물건의 최초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의이, 집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에 공고나 발령에 따라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본 돈입니다.
 - 매각기일 공고와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법원공고 → 판문경정보서비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의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가나 신청이나 항고, 대금과락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판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바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